



경주 탈해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석탈해(昔脫解)는 석씨의 시조이자 신라의 제4대(재위: 57~80) 왕이다.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이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신라에 정착했고,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남해차차웅의 사위가 되었다. 이후 왕실 사위의 자격으로 석씨 최초로 왕위에 올라 신라 삼성(三姓) 시조의 하나가 되었으며, 국호를 계림(鷄林)이라 하였다.

2 이주와 정착

석탈해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즉위년조를 보면, 석탈해의 이름과 관련하여 “혹은 토해(吐解)라고도 한다.”고 하여 다른 이름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관련사료](#)의 탄생과 이주에 관한 설화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려 있다. 먼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왕이 여국(女國) 왕의 딸을 왕비로 삼아 임신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는데, 왕은 좋지 못한 일이라 하여 버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아내는 차마 그리하지 못하고 비단에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껍질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어디로든 흘러가게 하였다. 껍질은 처음 금관국(金官國) 해변에 닿았는데, 금관국 사람들은 이를 거두지 않았다. 다시 진한(辰韓)의 아진포구(阿珍浦口)에 이르렀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왕이 된 지 39년(B.C19)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이때 바닷가 근처에 살던 한 할머니가 껍질을 보고 줄로 당겨 가져와 열어보니 그 안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처음 껍질이 왔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울며 따라다녔기에 까치 ‘작(鷦)’의 글자를 줄여 석(昔)으로 성을 삼았고, 또 껍질을 열고 나왔기에 탈해(脫解)라고 이름 지었다. [관련사료](#)

다음으로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좀 더 상세한 기록이 전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해왕 때 가락국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는데, 가락국의 수로왕이 맞이하여 가락국에 머무르게 하려했으나 배가 나는 듯이 달려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下西知村) 아진포(阿珍浦)에 이르렀다. 당시 포구 해변에 아진의선(阿珍義先)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가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고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사내아가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말하기를 본시 용성국(靖明國) 혹은 완하국이라고도 함) 사람으로 부왕 함달파가 적녀국의 왕녀를 맞이하여 비로 삼고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여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를 낳았다. 이에 왕이 사람이 알을 낳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껍을 만들어 넣고 바다에 띄워 보내었는데,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여 이곳까지 온 것이라 하였다. [관련사료](#)

위의 설화들을 통해 탈해 집단이 처음 바다를 통해 신라로 이주해 왔고, 또 처음에는 경주 동쪽 해변에 정착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어지는 설화의 내용을 통하여 이들이 철기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집단이었음이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탈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호공(虬公)의 집이 길지임을 알고 속임수로 취하여 살았다고 하는데, [관련사료](#) 『삼국유사』 기이편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한다. 이에 따르면 탈해가 지세가 좋은 땅을 찾다가 호공의 집이 마음에 들어 그 집 곁에 숯돌과 숯을 묻어놓고 이곳이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이었음을 주장하였다고